

# ‘주 최대 50시간’ 되나...반발 여론에 69시간서 대폭 후퇴

### 노동부·대통령실 엇박자 논란 노동계 “개편안 자체 폐기하라” “의견 수렴해 개선책 내놓을 것”

‘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현재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엔 포함된 69시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

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폭 쉼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기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두고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69시간 논란은 노동부가 지난 6일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 이미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다. 정부에 권고할 노동 개혁 과제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작년 11월

언론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69시간은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나온 수치로, 노동계는 7일 일할 경우 실제 최대 근로시간은 80.5시간에 달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부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일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이 ‘69시간’은 아니었다. 다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다른 주는 더 일할 수 없는 구조다.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통령 질타를 받아들여 보완 대책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단감한 상황이 됐다. 주 최대 69시간 상한을 50시간대로 대폭 낮춘다면 지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주장해온 세계 쪽에서는 당장 노동계가 이번 개편안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69시간이라는 숫자만 낮출 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고 버티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동자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최근 ‘지역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TP 제공

## 광주TP-7개 기관, 업무·미팅공간 공유한다

###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 운영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최근 ‘지역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광주TP,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GB금융지주, 경남·대구·제주·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8개 기관

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무·미팅공간을 상호 개방하는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 운영 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협약했다.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에는 협약기관의 보유 스타트업·추천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다 편안한 근무환경을 확보해 활발한 사업 추진활동

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멤버십 대상 스타트업’은 디캠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대구테크비즈니스센터 코워킹스페이스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I-PLEX 광주스타트업 빌딩 ▲제주 W360 등 전국 곳곳의 라운지를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I-PLEX광주가 창업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좋은 산단 조성’...입주기업 애로 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기업경영 애로 및 불필요한 규제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박인철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기업하기 좋고,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설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조사된 애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및 정책 반영 사항이나 법령·지침 개선, 다수의 기업이 겪는 애로 등은 중점규제 애로로 분류해 조치할 구상이다. /홍승현 기자

## 한전, 민·관·공 협력 에너지효율화 패키지 서비스 개발

### 에너지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한국전력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모델 제공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서울시, 삼성전자, LG전자, ㈜헤르티 등과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지역 DR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역DR이란 아파트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해

개별세대가 에너지사용을 줄이도록 요청된 시간에 에너지절감을 실천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역DR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아파트 20개 단지 약 1만 5,000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한전과 서울시는 전기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아파트를 내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세대는 전용 앱을 통해 지역DR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

이기로 예정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월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5만 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지역DR서비스와 별도로 스마트 홈 서비스, 가전플랫폼 연동 에너지절감(EERS) 서비스, 아파트용 파워플래너, 1인 안부살림 등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패키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 조달사업 관련 애로 제안

조달청은 오는 4월 14일까지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 ▲혁신·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분야의 판로 지원 ▲시설공사 입찰의 규제 개선 ▲비용·시간

절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디지털화 등 현장애로 사항 등이다. 공모방법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각 50만원, 장려(4명) 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공모전을 통해 168개의 과제가 발굴됐고, 이중 54개는 ‘22년 조달청 규제혁신 과제(138개)에 포함돼 개선 추진 중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모전에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금호타이어, 성능 테스트서 국내 업체 ‘최상위’

### 독일 아데아체-아우토 빌트 선정 마모·소음·지속가능성 등 평가

금호타이어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아데아체(ADAC)와 아우토 빌트(Auto Bild)가 실시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진) 금호타이어의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ECSTA) HS52’는 독일 내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아데아체 테스트에서 8위를 차지하며 국내 타이어 업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번 테스트는 아데아체 타이어 테스트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아데아체는 글로벌 타이어 50개사의 대표 유럽형 여름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마모·젖은 노면·젖은 노면의 주행 만족도와 마일리지, 마모, 소음, 지속가능성 등 환경적 균형에 대한 평가 만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테스트에서 종합 8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HS52’는 운전자에게 편안한 주행감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세단 및 스포츠 차량에 모두 적합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엑스타(ECSTA) PS71’는 유럽 유럽 매거진 아우토 빌트의 여름용 타이어 테스트에서도 종합 5위,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오지현 기자

## 작년 혼인건수 19만2천건 ‘역대 최소’

### 초혼 남자 34·여자 31세 이혼 건수는 3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며 역대 가장 적었다. 만혼 경향이 짙어지며 남녀의 초혼 연령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 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혼 내용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16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2,500건)보다 0.4%(800건) 줄어든 19만1,700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감소 중이다. 2019년부터는 4년째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고 있다. 1997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1년 전보다 0.1건 줄어든 3.7건이었다. 이 또한 관

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25~49세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감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 상승했다. 남녀 간의 초혼 연령 차이는 2.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벌어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가 51.0세, 여자가 46.8세로 각각 0.4세, 0.3세 올랐다. 재혼 연령도 역대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14만8,000건) 중 여자 연상 부부는 2만9,000건으로 19.4%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8,000건) 줄었다. 2020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2세, 0.1세 줄었다. /연합뉴스